

보육교사의 정서지능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원장 감성리더십의 매개효과

이신영
세한대학교 유아교육과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Leadership of Daycare Center Directors on the Relation between Childcare Teache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Teacher-Infant Interaction

Shin-Young Le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eh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보육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 감성리더십이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 29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고, 자료처리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산출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Sobel-test 및 Baron과 Kenny의 모형에 따라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보육교사의 정서지능,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원장 감성리더십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대한 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원장 감성리더십의 상대적 설명력에서 보육교사의 정서지능이 원장의 감성리더십 보다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교사의 정서지능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원장의 감성리더십은 부분적으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보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care teachers' emotional intelligence, daycare center directors' emotional leadership, and teacher-infant interactions. Also,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 daycare center director's emotional leadership would mediate the correlation between a childcare teache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teacher-infant interactions. A questionnaire was given to 293 childcare teachers. Using SPSS version 21.0, the data were analyzed for Pearson's correlatio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Sobel-test, and the mediation effect proposed by Baron and Kenn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 childcare teacher's emotional intelligence, the director's emotional leadership, and teacher-infant interactions. Second, the influence on teacher-infant interactions from directors' emotional leadership was relatively greater than childcare teachers' emotional intelligence. Finally, the emotional leadership of daycare center director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care teache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teacher-infant interactions. This study provides significant empirical data for improving childcare.

Keywords : Childcare Teacher, Emotional Intelligence, Daycare Center Directors, Emotional Leadership, Teacher-Infant Interaction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Sehan University Research Fund in 2020

*Corresponding Author : Shin-Young Lee(Sehan Univ.)

email: jegloria3@sehan.ac.kr

Received November 30, 2020

Accepted December 4, 2020

Revised December 3, 2020

Published December 31, 2020

1. 서론

영유아교육기관의 보육 및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사-영유아의 상호작용이다.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은 보육 및 교육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와 영유아 간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으로 영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가 영유아를 보육 및 교육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전반적인 태도와 행동을 의미한다[1]. 교사와 영유아 간의 적절한 상호작용은 보육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2-3] 영유아의 자존감 향상,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능력 등 현재의 전인적인 발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4-5] 미래에 성취되는 잠재적 발달에 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6-7]. 따라서 보육교사는 영유아에게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풍부히 함으로써 영유아가 교사를 신뢰하고 나아가 교사와의 관계에서 안정 애착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한다[2]. 또한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교사 관련요인을 살펴보면, 교수효능감, 전문성 인식,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행복감 등 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중 교사의 정서지능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서지능은 Salovey & Mayer[8]에 의하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그것들의 차이를 변별하며 사고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정서 관련 정보를 적절히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에 개인의 정서지능은 대인 관계를 좌우하는 주요인이 되며, 특히 교사에 있어서 정서지능은 교육신념, 교수-학습과정 및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영유아 놀이 지원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6][9-15]이 될 수 있다.

교사가 정서지능이 높을 때는 장시간 보육하여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도 자신과 영유아의 정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서를 조절하며 영유아와 적절히 상호작용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와 상호작용할 때 스킨십, 눈 맞춤, 칭찬과 격려 등의 애정적인 상호작용이나 정적 강화를 많이 사용하며, 영유아를 방관하거나 유아의 놀이 시간에 수업준비, 정리 정돈 등의 비참여적 행동은 덜 하는 경향을 보인다[15]. 또한 정서지능이 낮은 교사에 비해 정서지능이 높은 교사는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고 활용하는데 익숙하므로 인해 직무만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18].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서지능은 교사가 보육·교육 현

장에서 영유아와 상호작용할 때 꼭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능력이라 하겠으며[15][19], 교사와 영유아의 상호작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육·교육 현장에서도 교사들이 높은 정서지능을 갖추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사의 정서지능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보육·교육 현장의 변인으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원장의 감성리더십[20]을 들 수 있다. 감성리더십은 리더가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구성원의 감성적 필요를 배려함과 동시에 조직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하여 조직의 감성역량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21]. 원장의 감성리더십은 교사의 정서지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과 교수효능감을 함양하며 교사의 조직몰입과 교직헌신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2-23]. 따라서 감성리더십이 높은 원장이 보육교사들이 높은 수준의 정서지능을 갖도록 적절히 지원해준다면, 교사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의 질도 더 풍부해지리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6][9-15]나 원장의 감성리더십과 교사의 정서지능의 관계를 밝힌 연구[22-23]는 있지만 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과의 관계에서 원장의 감성리더십이 줄 수 있는 매개 효과를 다룬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교사의 정서지능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수준에 영향을 주고,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수준은 보육·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원장의 감성리더십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 감성리더십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 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원장의 감성리더십의 매개 효과를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영유아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보육교사의 정서지능,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감성리더십,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감성리더십이 교사-영유아 상

호작용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간의 관계에서 원장 감성리더십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연구대상은 임의표집(convenient sampling)을 통해 선정된 서울, 경기, 전남 지역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310명이다.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문지의 배부와 회수가 이루어졌는데 보육교사 연수기관 1곳과 어린이집 13곳을 통해 온라인으로 연구 목적과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지 전체 310부 중 불성실하게 작성된 17부(5.5%)를 제외한 최종 293부(94.5%)가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

Variables	Types	N	%
Age	20's	66	22.5
	30's	70	23.9
	40's	66	22.5
	Over 50	91	31.1
Education level	College	150	51.2
	University	103	35.2
	Graduate school	20	6.8
	Nursery Teacher Training Center	20	6.8
Teacher career	3 years or less	48	16.8
	3-6 years	115	39.2
	6-9 years	52	17.7
	6-9 years	78	26.6
Total		293	100

2.2 연구도구

2.2.1 정서지능

보육교사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Wong과 Law가 개발하고[24] 한지현과 유태용이 변안한 척도 WLEIS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25]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하위요인인 '자기정서인식', '타인정서인식', '정서활용', '정서조절' 별로 각 4 문항씩, 총

16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아질수록 높은 정서지능을 나타낸다. 정서지능의 전체 신뢰도는 .91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composition and reliability of emotional intelligence

Sub-factor	Question number	Cronbach's α
Self-emotional recognition	1,5,9,13	.76
Perception of other people's emotions	2,6,10,14	.87
Emotional utilization	3,7,11,15	.77
Emotional regulation	4,8,12,16	.82
Total		.91

2.2.2 감성리더십

원장의 감성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Goleman, Boyatzis, McKee의 Primal leadership[21]에 기초하여 권정해와 김판희가 개발한 원장의 감성리더십 척도 [26]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자기인식능력' 5문항, '자기관리능력' 10문항, '사회적 인식능력' 7문항, '관계관리능력' 14문항,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감성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7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Question composition and reliability of emotional leadership scale

Sub-factor	Question number	Cronbach's α
Self-awareness ability	1,2,3,4,5	.88
Self-management ability	6,7,8,9,10,11,12,13,14,15	.95
Social awareness ability	16,17,18,19,20, 21,22	.94
Relationship management ability	23,24,25,26,27,28,29,30,31,32,33,34,35,36	.96
Total		.97

2.2.3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은 황문희가 사용한 보육교사용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검사 도구[27]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정서적 상호작용', '언어적 상호작용', '행동적 상호작용'이며, 하위요인 별로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5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Question composition and reliability of teacher-infant interaction

Sub-factor	Question Number	Cronbach's α
Emotional interaction	1,6,8,10,15,17,19,24,26,28	.92
Verbal interaction	2,4,9,11,13,18,20,22,27,29	.89
Behavioral interaction	3,5,7,12,14,16,21,23,25,30	.95
Total		.96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도구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검사를 하였으며,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둘째,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대한 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 감성리더십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셋째, 보육교사의 정서지능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원장 감성리더십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Sobel-test 및 Baron과 Kenny의 매개 효과 검증을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보육교사의 정서지능, 원장의 감성리더십,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상관관계

보육교사의 정서지능, 원장의 감성리더십, 교사-영유아의 상호작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r)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childcare teachers' emotional intelligence, daycare center directors' emotional leadership, and teacher-infant interaction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leadership	Teacher-infant interaction
Emotional intelligence	1		
Emotional leadership	.43**	1	
Teacher-infant interaction	.63**	.54**	1

** $p < .01$

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감성리더십,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보육교사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 감성리더십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은 높으며,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 감성리더십이 높을수록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이 활발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연구변인 간 상관계수가 .43~.63, 측정변인 간 상관계수도 .25~.85로 .85을 넘지 않고,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원장의 감성리더십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교사의 정서지능, 교사가 인식한 원장의 감성리더십의 고유한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을 때 VIF 값이 1.3이고 공차가 .89로 VIF 10을 넘지 않았고 공차도 1에 근접하였다. Durbin-Watson 값의 검증 결과도 Durbin-Watson 값이 2.06으로 정상분포곡선을 의미하는 2에 근접하였기에 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1단계로 교사의 정서지능 요인을 투입하였을 때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4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F = 195.71$). 또한 2단계로 원장의 감성리더십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력이 14% 증가되어($p < .001$, $F = 82.05$)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대한 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원장의 감성리더십의 전체 설명력은 54%가 되었다. 그리고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두 변인별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보육교사의 정서지능 $\beta = .46$, 원장의 감성리더십

$\beta=.40$ 으로 보육교사의 정서지능이 상대적으로 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The Relative influence of childcare teache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directors' emotional leadership on teacher-infant Interaction

	B	SE	β	R^2	ΔR^2	F
Emotional intelligence	.47	.03	.63***	.40	.40	195.71***
Emotional intelligence	.34	.03	.46***	.54	.13	82.05***
Emotional leadership	.21	.02	.40***			

*** $p<.001$

3.3 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원장 감성리더십의 매개 효과

보육교사의 정서지능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 리더십이 유의하게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Sobel-test와 Baron과 Kenny의 매개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Table 7의 Sobel-test 결과를 보면, 보육교사 정서지능->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감성리더십->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경로는 Z값이 6.20($p<.001$)으로 Z값이 1.96보다 컸다. 따라서 원장 감성리더십은 유의한 수준에서 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7. Sobel-test result

Variables		B	β	SE	Z-value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leadership	.61	.43	.08	6.20***
Emotional leadership	Teacher-infant interaction	.32	.60	.03	

*** $p<.001$

또한, Table 8에 보이는 바와 같이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분석 단계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 설명량 R^2 은 .54로 나타났고 Step 3에서의 보육교사 정서지능의 표준화 계수($\beta=.63$)가 Step 2($\beta=.46$)에서는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p<.001$). 이것은 원장의 감성리더십이 부분 매개를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영유아 상호

작용 간의 관계에서 원장의 감성리더십은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Table 8.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leadership of daycare center direc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teacher-infant interaction

step	Variables		B	SE	β	t(p)	R^2
1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leadership	.61	.08	.43	8.14***	.18
2	Emotional intelligence	Teacher-infant interaction	.46	.04	.63	12.84***	.40
3	Emotional intelligence	Teacher-infant interaction	.34	.03	.46	10.37***	.54
	Emotional leadership	Teacher-infant interaction	.21	.02	.40	9.08***	

*** $p<.001$

3. 결론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원장 감성리더십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과 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간의 관계에서 원장 감성리더십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사의 정서지능,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 감성리더십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원장의 감성리더십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보육교사의 정서지능이 원장리더십에 비해 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원장 감성리더십은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본적으로 교사의 정서지능은 의사소통능력을 높이고 대인간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결과들[6][9-15]과 원장의 감성리더십과 교사의 정서지능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주장한 연구결과들[22-23][29]을 지지한다. 또한 원장 감성리더십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는 박은경과 김정희의 연구결과[28]를 뒷받침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정서지능이 원장 감성리더십의 지원을 받을 때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입증되었고, 교사의 과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보육교사 정

서지능과 감성적 리더십이 보육 및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간단히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 사회적으로 심화되는 저 출산 문제 및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보육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보육기관의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30]. 이와 관련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모색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영유아와 장시간 함께 지내며 상호작용하는 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원장의 감성리더십 등 과정적 요인의 질적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과정적 요인은 Taylor와 Farver와 Stroller가 강조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예측 요인[31]으로서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 및 행복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32-34].

둘째, 최근 보육 및 교육 현장에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인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실행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누리과정의 실행의 주체인 교사의 자율성이 크게 강화되었고 이전 누리과정과는 다른 교사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즉,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를 관찰·기록하면서 유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가급적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통해 행복한 배움에 이르도록 지원해야 하는데[35], 이때 교사가 높은 정서지능을 갖고 영유아와 상호작용한다면, 또한 원장이 높은 감성리더십으로 교사들과 영유아들의 놀이를 지원해준다면 개정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목표에 좀 더 수월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놀이를 통해 교사와 유아가 자기 학습만의 발전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연수가 많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교사의 정서지능과 원장의 감성리더십 등 보육교사의 과정적 요인을 함양하는 체계적이며 다양한 연수가 병행된다면 개정 누리과정의 구현을 위한 원활한 역할을 하리라 사료된다. 무엇보다 교원양성대학 교육과정과 보육교직원 자격 및 승급 연수과정에 정서지능과 감성리더십 관련 강좌들이 개발되어 운영된다면 교사의 정서지능 및 원장의 감성리더십 함양에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을 밝히면 첫째,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정서지능,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 감성리더십,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을 측정함에 있어 설문지를 활용한 양적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정서지능,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 감성리더십,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이

해하기 위한 면담과 관찰 등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성별, 연령, 근무기관 유형 등의 배경 변인을 통제하지 못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라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매개 변인으로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감성리더십 외에 다른 여러 변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로 다른 변인들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연구결과들은 보육·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행복한 보육·교육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References

- [1] M. A. Choi, *A Study of Teachers' Job Satisfaction and the Mutual Interaction between Teachers and Children in the Kindergarten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p.3-4, 1999.
- [2] K. C. Kim, A. S. Shin, "Relations among Infant Teachers' Professionalism, Sensibility, and Happiness, and Infant-Teacher Interaction, and their Effects on Infant-Teacher Interaction",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16, no.2, pp.57-82, 2016. DOI: <http://dx.doi.org/10.21213/kicec.2016.16.2.57>
- [3] H. J.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Professional Percep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Care Teacher's Efficacy and Children-Teachers Interaction",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15, no.4, pp.93-112, 2015.
- [4] H. J. Kim, D. J. N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achers' Efficacy Belief of Interactions and Teachers and Children",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2, no.2, pp.111-128, 2006.
- [5] J. Downer, T. J. Sabol, B. T. Hamre, "Teacher-Child Interactions in the Classroom: Toward a Theory of Within-and Cross-domain Links to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s", *Early Educational Development*, vol.21, no.5, pp.699-723, 2010. DOI: <http://dx.doi.org/10.1080/10409289.2010.497453>
- [6] M. R. Chung, S. K. Kim, M. J. Kim, "The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of Efficacy Belief about Play and Professional Recognition between Kindergarten Teache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Teacher-child Interaction", *Korean Journal of Childcare & Education*, vol.12, no.3, pp.137-157, 2016. DOI:<http://dx.doi.org/10.14698/ikcce.2016.12.03.1372016>
- [7] D. L. Vandell, J. Belsky, M. Burchinal, L. Steinberg, L. N. Vandergrift, "Do Effects of Early Child Care extend to Age 15 Years? Results from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Child*

- Development*, vol.81. no.3, pp.737-756, 2010.
DOI: <http://dx.doi.org/10.1111/j.1467-8624.2010.01431.x>
- [8] P. Salovey, J. D. Mayer, The Positive Psychology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C. R. Snyder & S. J. Lopez.(Eds.),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p.159-170.
- [9] J. Y. Kwon, "The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Labor, and Working Stress of Child-care Teacher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0, no.6, pp. 269-290, 2010.
- [10] S. J. Na, *The Effects of Childcare Teache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Fatigue on Teacher-Child Interaction*,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p.66-81, 2015.
- [11] Y. Y. Park, *Effects of Child Care Teache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nsitivity on Teacher-Infant Interactions*,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p.43-53, 2018.
- [12] B. R. Yeon, *The Effect of Teache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Knowledge about Infant Development on the Interaction between Teachers and Infants*,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Korea, p.43-49, 2014.
- [13] L. S. Goldstein, V. E. Lake, "Love, Love, and More Love for Children: Exploring Preservice Teachers' understandings of caring",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vol.16, no.8, pp.861-872, 2000.
DOI: [http://dx.doi.org/10.1016/S0742-051X\(00\)00031-7](http://dx.doi.org/10.1016/S0742-051X(00)00031-7)
- [14] M. Zembylas, "Discursive Practices, Genealogies, and Emotional Rules: A Poststructuralist View on Emotion and Identity in Teaching",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vol.21, no.8, pp.935-948, 2005.
DOI: <https://doi.org/10.1016/j.tate.2005.06.005>
- [15] H. J. Cho, S. Y. Kim, "A relationship of teachers' emotional intelligence to teacher-infant interaction among infant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7, no. 5, pp.189-208, 2012.
- [16] N. S. Kim, *Impa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Teacher Efficacy on Job Satisfaction in Early Childhood Teachers*, Ph.D dissertatio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Gangwon-do, Korea, p.74, 2015.
- [17] H. L. Moon, J. H. Kang, "The Influence of Infant Teacher's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ir Role Performance",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10, no.2, pp.121-136, 2015.
DOI : <https://doi.org/10.16978/ecec.2015.10.2.006>
- [18] J. H. Lee, *Exploration of the Relations with Emotional Labor of Childcare Teachers,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Emotional-Values, Job Satisfaction, Burnout*, Ph.D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p.3-4, 2007.
- [19] E. S. Noh, S. S. Pu, "The Impa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Communicative Competenc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43, no.4, pp.113-135, 2012.
- [20] J. Y. Hong, *The Relationship among Child Care Center Director's Emotional Leadership, Teachers' Emotional Intelligence, Teacher Efficacy,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eachers and Children*, Ph. D dissertation, Anyang University, Gyeonggi-do, Korea, p.10-11, 2015.
- [21] D. Goleman, R. Boyatzis, A. McKee, *Primal Leadership: Realizing the of Emotional Intelligence*.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002.
- [22] S. J. Lee, *Happiness and Work Stress Perceived by Directors and Infant Teachers Depending on Emotional Leadership*, Master's thesis,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70, 2016.
- [23] Y. J. Byun, S. H. Ahn, "Factors Contributing to Kindergarten Teacher's Commitment to Teaching: Focused on a Director's Emotional Leadership, a Fellow Teacher's Emotional Support, and a Motivation for Choosing a Teaching Professio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5, no.4, pp.263-284, 2018.
DOI: <http://dx.doi.org/10.22155/JFECE.25.4.263.284>
- [24] C. S. Wong, K. S. Law, K. S,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13, no.3, pp.243-274. 2002.
- [25] J. H. Han, T. Y. Yoo, "The Effects of Leader's Emotional Intelligence on Subordinate's Attitude and Leader's Task Performance",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18, no.1, pp.177-199, 2005.
- [26] J. H. Kwon & P. H. Kim,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Directors' Emotional Leadership, Teacher Efficacy,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Perceived by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24, no.1, pp.81-98, 2014.
- [27] M. H. Hw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Care Teachers' Aptitude & Emotional Labor and Teacher-Child Interaction*,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p.72, 2013.
- [28] E. K. Park, J. H. Kim, "The Influence of Teacher Happiness and Teacher-Child Interaction on Principal's Emotional Leadership Perceived by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21, pp.1-23, 2019.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21.1>
- [29] C. D. Cho, K. S. Ka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rivate Kindergarten Director's Emotional Leadership, Kindergarten Teacher's Emotional Intelligence, Teacher's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4, pp.741-767, 2016.

- [30] S. Y. Lee, W. K. Seo, "The Effects of Job Burnout and Empowerment on the Flourishing of Child Care Teacher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19, no.1, pp.15-26, 2019.
DOI : <http://dx.doi.org/10.22590/ecee.2019.23.2.7>
- [31] C. Taylor, C. Farver, J. K. Stroller, "Perspective: Can Emotional Intelligence Training Serve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Teaching Professionalism to Residents?", *Academic Medicine*, vol.86, no.12, pp.1551-1554, 2011.
DOI: <https://doi.org/10.1097/ACM.0b013e318235aa>
- [32] H. J. Lee, S. K. Lee,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ersonality, Feeling of Happiness, and Empathic Abilit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Interactions between Teachers and Toddler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24, no.1, pp.8-42, 2020.
DOI :<https://doi.org/10.22590/ecee.2020.24.1.7>
- [33] J. H. Han, "A Stud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4, no.3, pp.221-238, 2014.
- [34] J. J. Gross, Emotion and emotion regulation. In L. A. Pervin, & O. P. Joh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2nd ed.), NY: Guilford Press, 1999, pp.525-552.
- [35]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mmentary on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Published by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pp.8-21.
-

이 신 영(Shin-Young Lee)

[정회원]



- 1993년 2월 :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 (교육학석사)
- 2004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문학박사)
- 2016년 3월 ~ 2017년 2월 :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유아교육과 초빙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세한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숲유치원 교육, 부모교육, 유·초연계교육